

### 케이스탯 2022년 5월 사회지표

####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부정평가 59%, 전월 대비 5%p 상승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3%,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
- \_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64%, 여론 악화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부정평가 상승세, ‘만족 않는다’ 70%
- \_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69%, 2개월 연속 상승
- \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비슷’ 66%, ‘줄 것’ 22%, ‘늘 것’ 12%
- \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줄어들 것’ 12%, 전월 대비 4%p 증가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과 비슷할 것’ 40%, 4개월 연속 상승
- \_ 주식 가격 전망 : ‘하락 전망’ 32%, 지난해 2월 이후 첫 30%대

#### ■ 5월 특별지표 : 국민의 ‘불안 의식’ 진단

- \_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불안하다’ 69%
- \_ 영역별 불안감, ‘경제적 문제’ 76%로 가장 높아
- \_ 불안감,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더 높아
- \_ 불안감 높은 지역, 호남과 TK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5월 6일(금) ~ 5월 8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p$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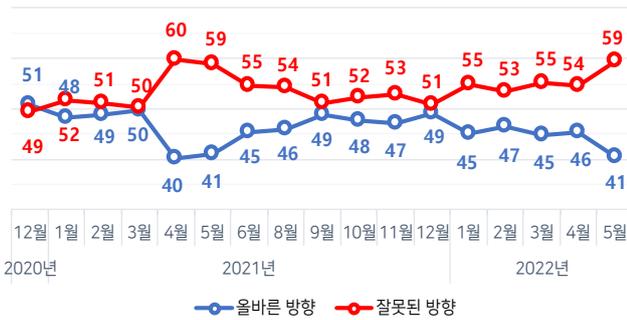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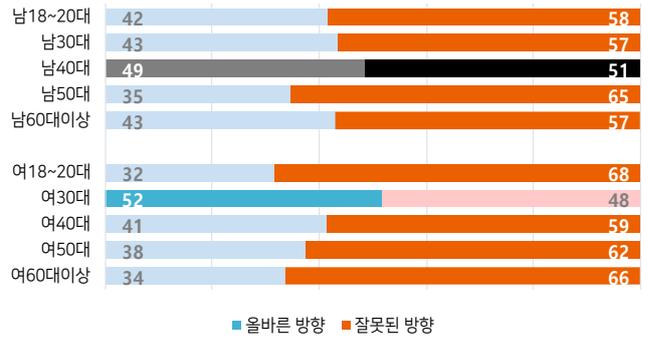
###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부정평가 59%, 전월 대비 5%p 상승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부정평가가 큰 폭 상승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부정평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2년 5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 41% vs '잘못된 방향' 59%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대 △여자 18~20대, 60대 이상 △충청, TK △보수층 △은퇴·무직자 등임
- 한편, '올바른 방향'이 더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뿐이었으며,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남자 40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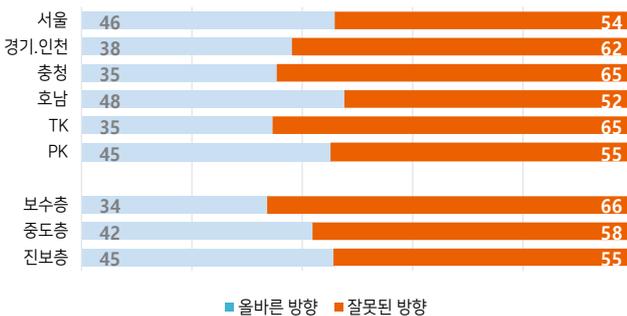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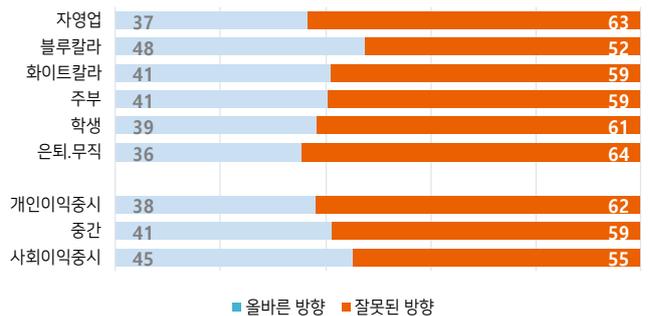
2022년 5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성/연령별 (단위:%)



2022년 5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2022년 5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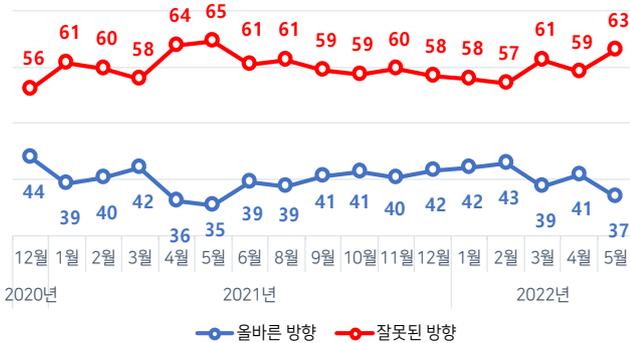
#### Kstat Point

- ☑ 5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가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이는 작년 4.7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권 심판론' 여론이 '국정 안정론' 여론보다 높았던 시점인 작년 5월과 동일한 결과이기도 함
  - : 지난 3월, 4월 대비 남녀 20대:50대, 여자 60대 이상, 경기·인천, 충청, 보수층, 학생, 은퇴·무직자, 개인이익중시층 등 이념성향 중도층·보수층을 중심으로 부정여론이 큰 폭 상승함
  - : 당시와 비교해보면 남녀 40대, 남자 50대, 호남, 진보층 등의 부정평가가 대폭 상승함
- ☑ 문재인 정부 임기 마무리와 새 정부 출범의 임박 시점이 맞물린 시기에 새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도덕성·자질 논란, '검수완박' 입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6.1 지방보궐선거 등판 등을 둘러싼 친구 권력간 갈등 양상과 잡음이 상당해,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국민평가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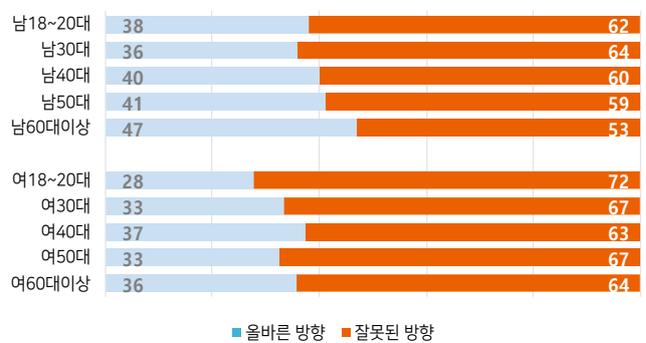
##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3%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 '잘못된 방향'이라는 여론이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2022년 5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 37% vs '잘못된 방향' 63%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50대 △경기·인천, 충청 △보수층 등임
-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 △호남 △블루칼라, 학생 △사회이직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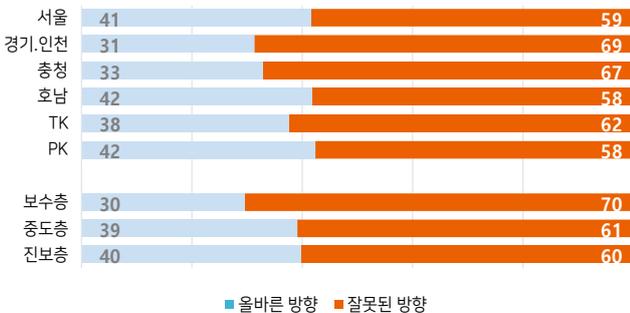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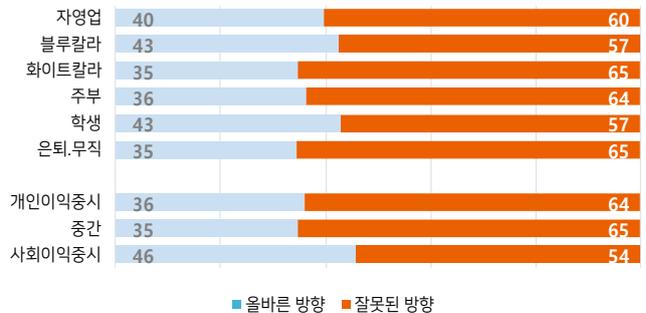
2022년 5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5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2022년 5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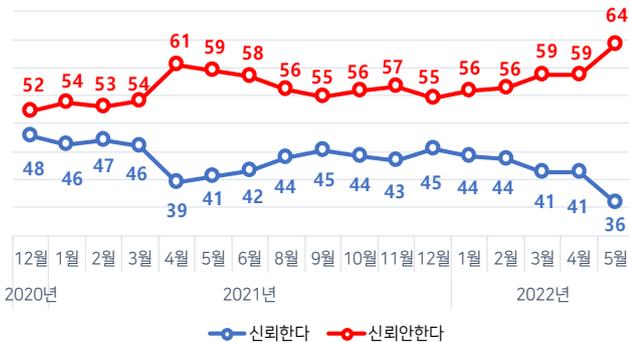
### Kstat Point

- ☑ 지난 2월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여론이 점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임
  - :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국민의 소비심리는 개선되고 있지만, 고물가·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며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4.8%를 기록함.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5.7% 상승해 2008년 8월 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 ☑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높은 인플레이션, 미국의 빅스텝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단행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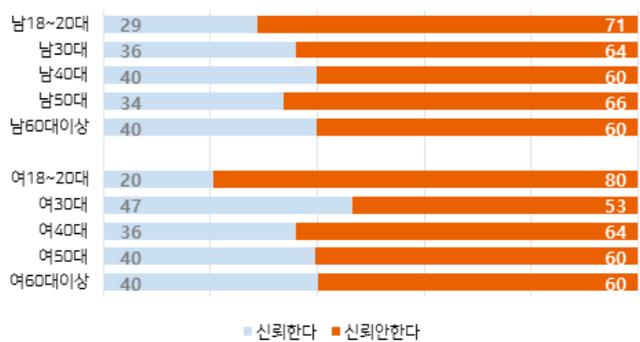
## □ 정부 신뢰도 : '신뢰 안 한다' 64%, 여론 악화

- 정부를 '신뢰 안 한다'는 여론이 큰 폭 상승하며, 부정평가가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2022년 5월 정부 신뢰도는 36%로, 첫 조사를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당해 5월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신뢰 안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 △보수층 △학생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 '신뢰한다'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PK △진보층 △주부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 한편, △호남은 두 의견이 반으로 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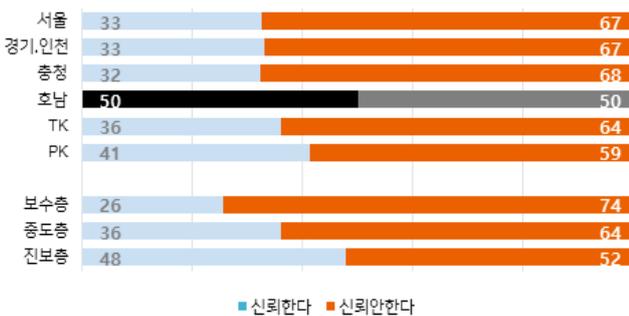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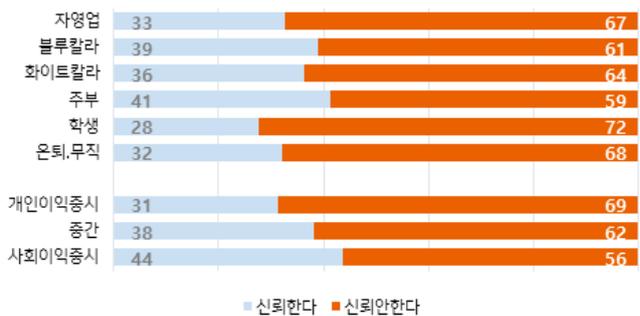
2022년 5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5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2022년 5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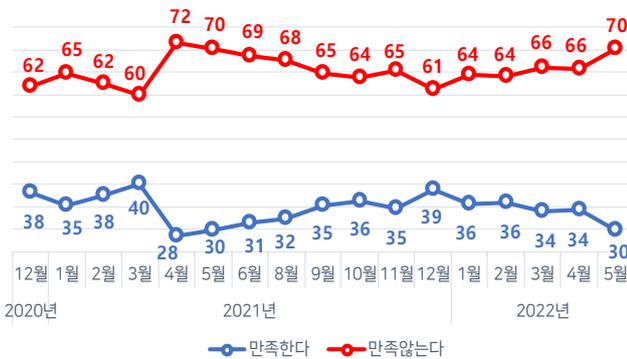
### Kstat Point

- ☑ 5월 정부 신뢰도에 대한 여론이 2020년 3월 조사 이래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 남자 3050세대, 여자 2040세대, 수도권, 중도층, 진보층,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개인이익중시층, 사회이익중시층 등을 중심으로 신뢰도가 큰 폭 하락함
  - : 최근의 정국 주요 현안 중 긍정여론보다 부정여론이 높게 형성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처리 하는 모습에 특히 무당층, 중도층 등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 ☑ 윤석열 정부에 집중된 국민평가가 이뤄질 6월에는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 '병사 월급 2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공약 실천, 6.1 지방·보궐선거 결과 등과 연계돼 이뤄질 예정으로, 어떤 방향으로 첫 여론이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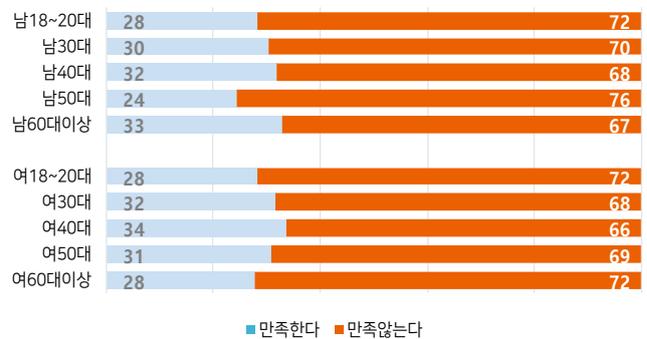
## □ 정부 정책 만족도 : 부정평가 상승세, '만족 않는다' 70%

- 정부 정책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불만족 응답이 70%를 기록함
  - 2022년 5월 조사결과 '만족한다' 30% vs '만족 않는다' 70%로, 지난해 5월과 같은 수준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대 △TK △보수층 △은퇴·무직자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 '만족한다'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호남 △진보층 △학생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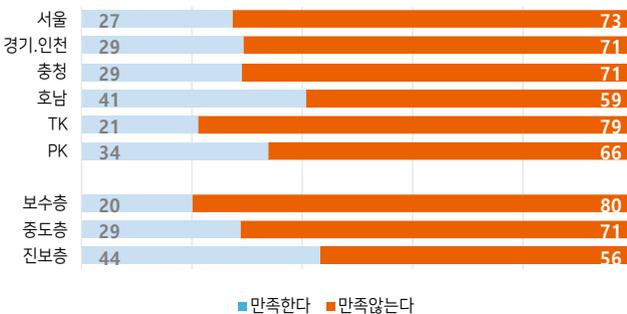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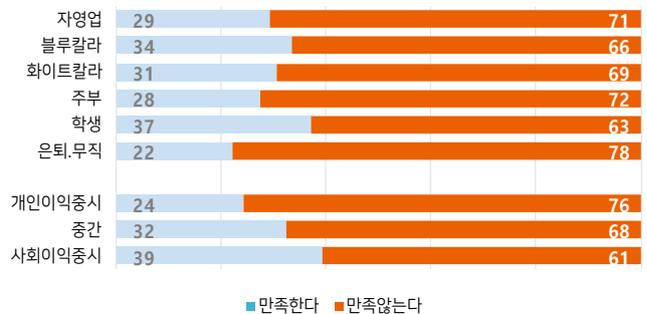
2022년 5월 정부정책 만족도: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5월 정부정책 만족도: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2022년 5월 정부정책 만족도: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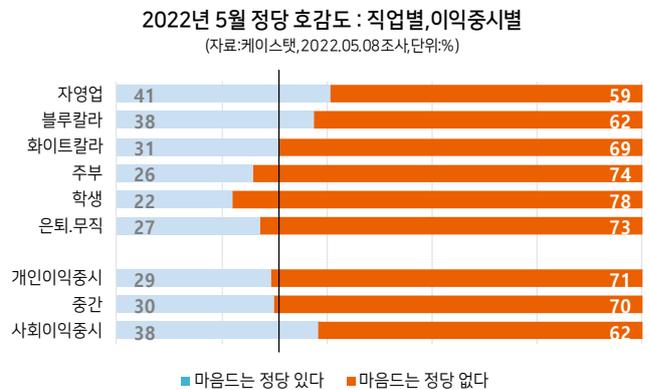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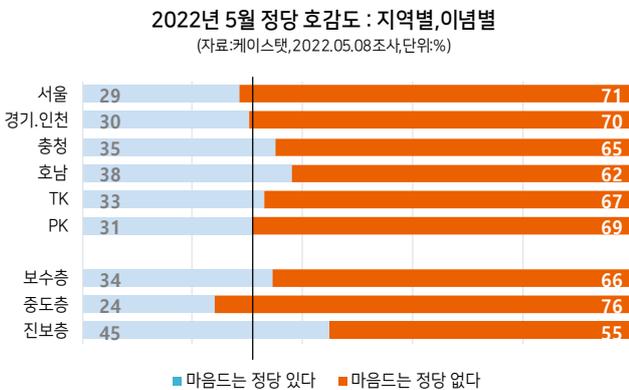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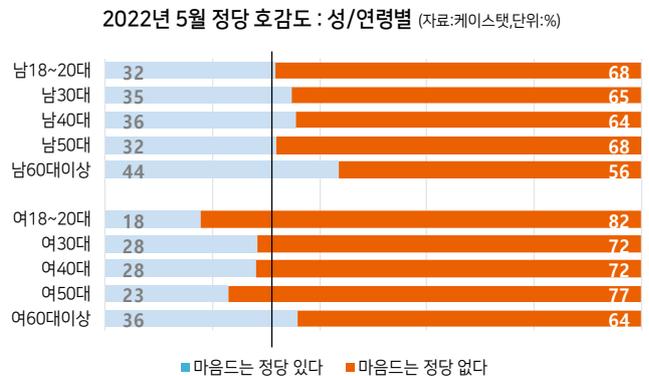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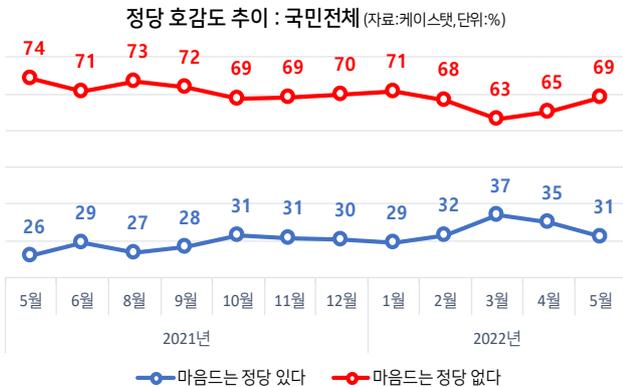


### Kstat Point

- ☑ 부정여론 상승 추이를 보이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정부 신뢰도와 같이 정부 정책 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 또한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 계층별 여론을 살펴보면, 지난달 대비 부정평가가 큰 폭 상승한 계층은 남녀 50대, 여자 18~20대, 서울, 충청, 호남, 중도층,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은퇴·무직자,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시행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마무리되고, 국민의 관심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라온 검찰개혁안에 상대적으로 더 쏠리면 서 전반적으로 여론이 더 악화한 것으로 보임

## □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69%, 2개월 연속 상승

- 정당 호감도 관련하여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2개월 연속 상승
  - 5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31%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69%로, 두 의견 격차가 더 확대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18~20대, 50대 △중도층 △주부, 학생 등에서 높았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의견이 높은 계층은 △남자 4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호남 △진보층 △자영업자, 블루칼라 △사회이익 중시층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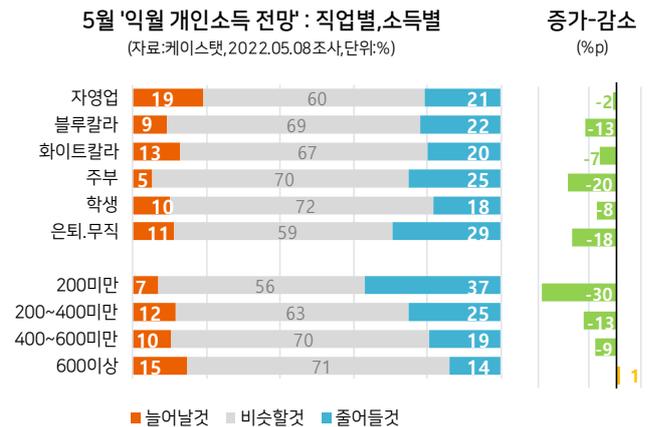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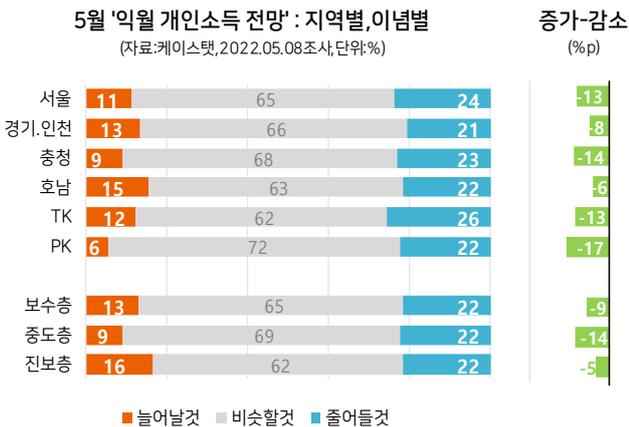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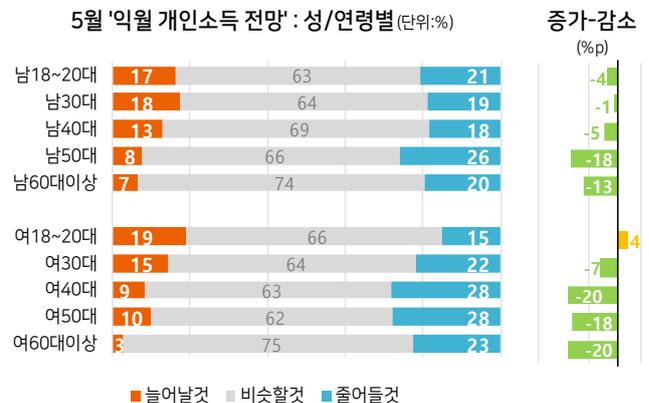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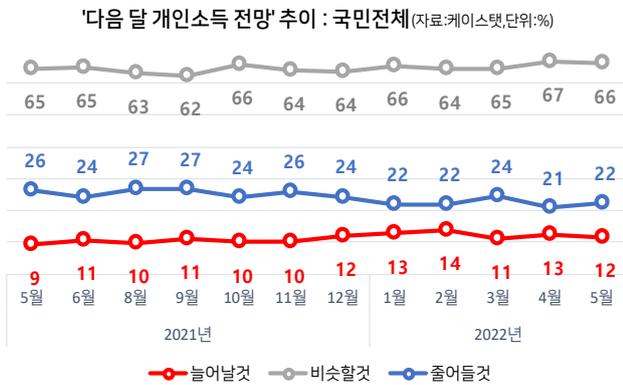


### Kstat Point

- ☑ 제20대 대선 직후 정당 호감도가 고점을 찍었던 지난 3월 이후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음
  - : 지난 4월과 비교하여 남녀 20대, 여자 30대·50대, 서울, 충청, 호남, 보수층, 진보층, 은퇴·무직자, 개인이익 중시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의 부정평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
  - : 반면, 남녀 40대, TK, 화이트칼라 등은 긍정여론이 상승함
  - : 새 정부 1기 내각 청문회 정국, 검수완박 법안 처리, 대선 연장전·미니 총선 성격의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정당 호감도에 대한 여론이 제20대 대선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임

##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비슷' 66%, '줄 것' 22%, '늘 것' 12%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에 대한 응답은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과 비슷할 것' 60%선, '줄어들 것' 20%선, '늘어날 것' 10%선의 분포를 유지하고 있음
  - '지금과 비슷할 것' 66%, '줄어들 것' 22%, '늘어날 것' 12%로 조사됨
- 국민 전체 여론에서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는 전월 대비 2%p 감소한 -10%p를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마이너스 폭이 큰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4060세대 △PK △주부,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 전 계층 중 '줄어들 것' 응답이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하며,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
- '차이'가 플러스로, 긍정적 전망을 한 계층은 △여자 18~20대 등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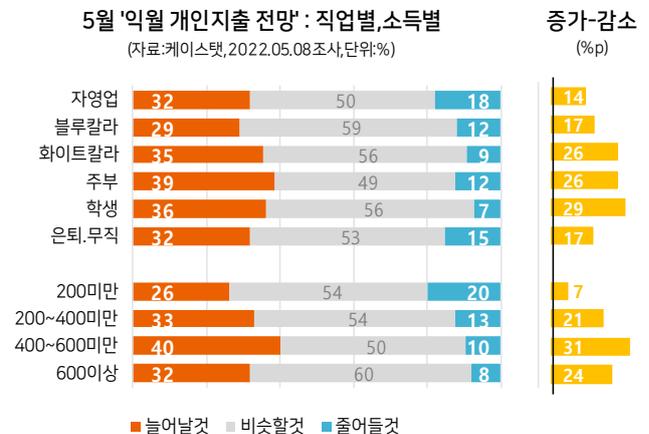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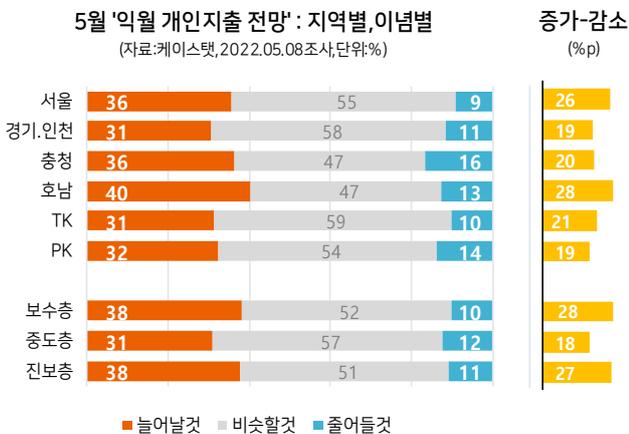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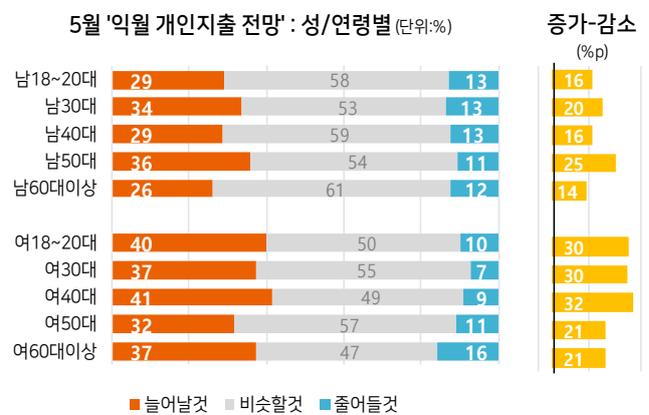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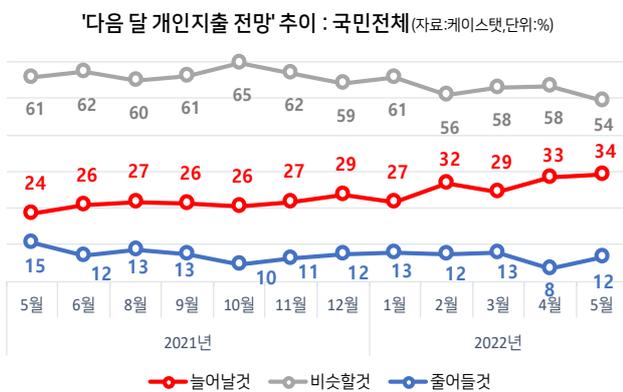


### Kstat Point

☑ 5월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에 대한 여론은 지난 4월과 비슷한 가운데, '지금보다 늘어날 것' 응답은 감소하고, '지금보다 줄어들 것' 응답은 증가하며 익월 개인소득 감소에 무게를 둠  
 : 고물가 지속은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최근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며 4%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한 것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6월 개인소득 전망은 이번 달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줄어들 것' 12%, 전월 대비 4%p 증가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관련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감소한 가운데, '지금보다 줄어들 것' 응답이 4%p 상승함
  - '지금과 비슷할 것' 응답은 전월 대비 4%p 하락한 54%를 기록한 반면, '줄어들 것'은 4%p 증가한 12%를 기록함. '늘어날 것'은 34%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가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차이가 큰 계층은 △여자 2040세대 △호남 △보수층 △학생 △소득 400~600만원 계층 등임
-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은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 △자영업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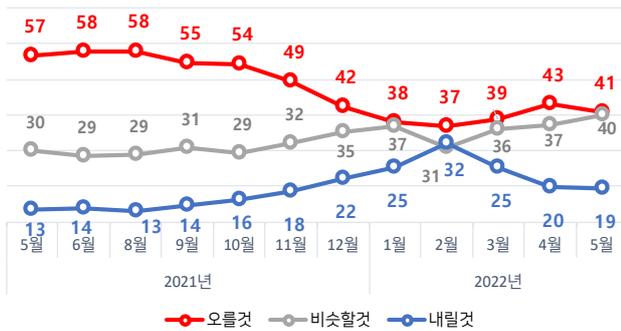
### Kstat Point

- ☑ 다음 달 개인 '지출 증가' 전망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출 감소' 전망은 4월보다 4%p 증가함
  - : 지난 4월 다른 응답 계층에 비해 개인 지출 증가 전망 의견이 뚜렷했던 젊은층의 5월 응답을 살펴보면, 여자 3040 세대를 제외한 남자 2040세대, 여자 20대, 학생 등의 지출 감소 의견이 큰 폭 상승했음
  - : 반면, 남녀 50대, 서울 등은 전월보다 지출 증가를 전망한 응답이 증가함
- ☑ 물가 체감도가 높고,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생활용품 등 위주로 물가가 높은 상황 속 소비 여력이 작아질 가능성 등을 고려함에 따라 지출 증가 전망과 감소 전망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 4월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 대비 0.3%p, 0.2%p 상승함.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교통(13.8%), 음식·숙박(6.5%), 식료품·비주류음료(4.6%) 등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됨
  - : 또한 인도네시아발 팜유 파동, 인도 밀 수확량 감소 등으로 밥상 물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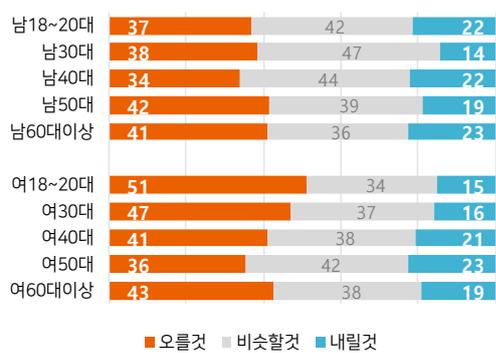
## □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과 비슷할 것' 40%, 4개월 연속 상승

- 지난 2월 이후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한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의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보다 오를 것',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 모두 소폭 하락함
  - 2022년 5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41%, '비슷할 것' 40%, '내릴 것' 19% 순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차이'(오를 것-내릴 것)가 플러스를 기록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높게 전망하고 있으나 계층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음
- 부동산 가격 상승을 특히 높게 전망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충청 △국가 방향 부정평가층 △정부 불신층 등임
- 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낮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50대 △TK △국가 방향 긍정평가층 △정부 신뢰층 등이었음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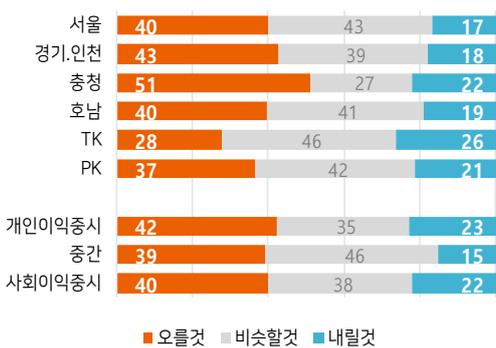
5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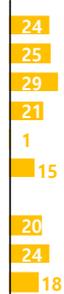
상승-하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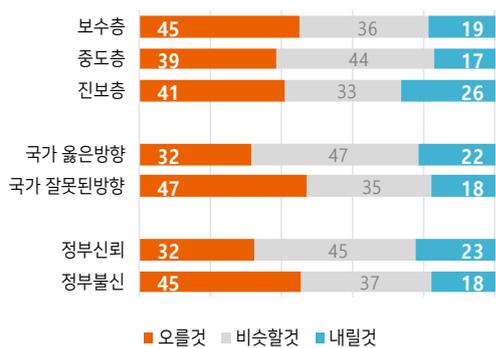
5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지역별,이익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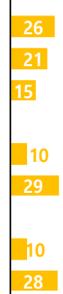
상승-하락 (%p)



5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이념별 등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상승-하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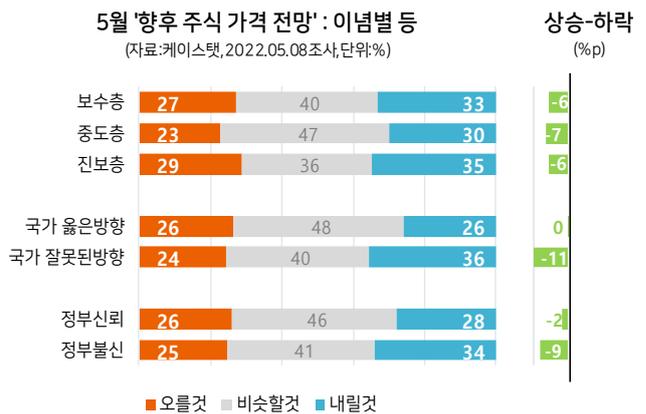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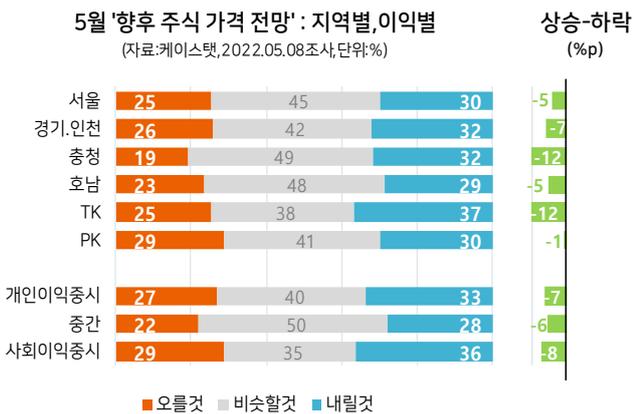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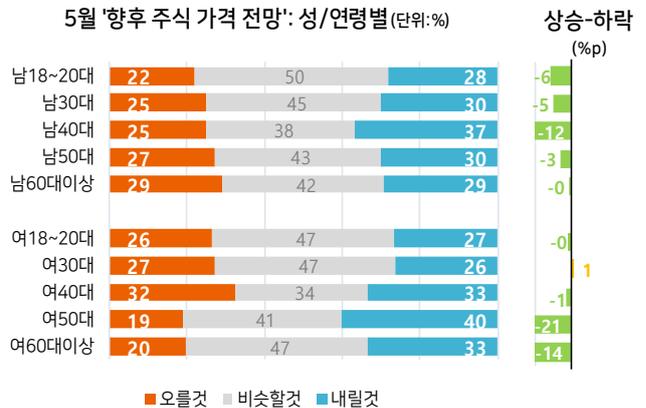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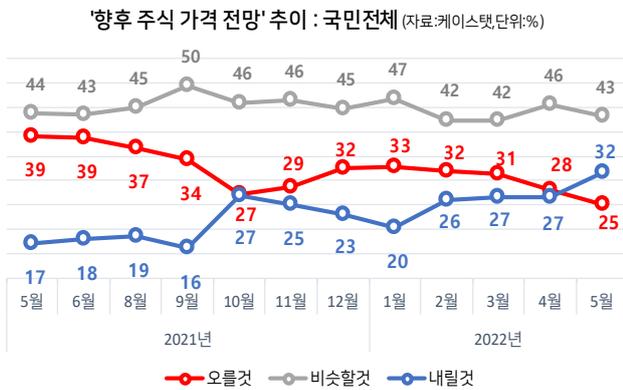


### Kstat Point

- ☑ 지난 2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 전망은 소폭 하락함
  - : 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와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에 매매 심리와 관망 분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한국부동산원 발표, 4월 전국주택종합매매가격 상승률은 0.06%로 전월(0.02%) 대비 상승폭이 늘어났으며, 수도권 (-0.04%→0.03%)과 서울(-0.01%→0.04%)은 전월 대비 상승 전환됨. 한편, 최근 서울의 주별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를 살펴보면, 3월 1주(87.0) ~ 4월 3주(91.4)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4월 4주(90.5)는 하락, 5월 1주(91.1)는 다시 상승, 5월 2주(91.0)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 주식 가격 전망 : '하락 전망' 32%, 지난해 2월 이후 첫 30%대

- 주식 가격에 대한 국민 전망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한 가운데, '내릴 것' 응답이 큰 폭 상승하며 '오를 것' 응답을 앞지름
  - 5월 조사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 43%, '지금보다 내릴 것' 32%, '지금보다 오를 것' 25% 순으로 나타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주가 하락 전망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주가 하락('차이')가 마이너스를 특히 높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5060세대 △충청, TK 등임
- 한편, 주가 상승 및 하락 전망 의견이 팽팽한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 △여자 2040세대 △PK △국가 방향 긍정평가층 등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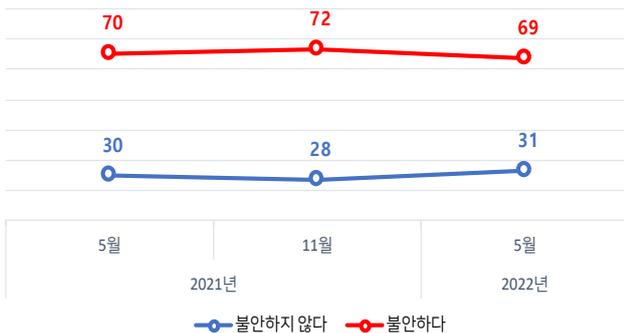
- ☑ 올해 들어 주가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이 갈수록 뚜렷해지며,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주가 상승 전망 응답을 넘어서는 추세 변동이 나타남
  - : 녹록지 않은 금리·물가 상황, 환율 강세, 일본 경제 둔화 우려, 중국 경제 경착륙 리스크, 암호화폐 급락 등이 악재로 작용해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주식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보임

## 5월 특별지표 : 국민의 '불안 의식'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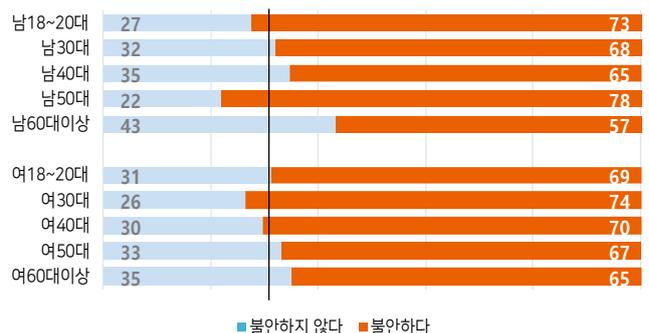
### □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불안하다' 69%

- 국민 대다수는 평소에 자기 삶과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께서서는 평소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세요?”라는 질문에 ‘불안하지 않다’ 31% vs ‘불안하다’ 69%로 조사됨
  - 지난해 5월, 11월 대비 ‘불안하다’는 응답이 소폭 감소함(각 1%p, 3%p)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특히 △남자 50대 △여자 30대 △TK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에서 높았음
- ‘불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남자 4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충청 △주부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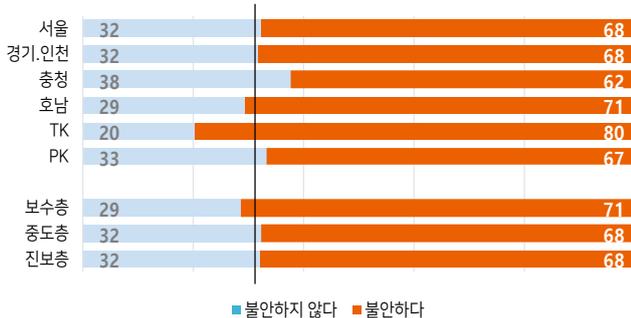
'삶과 미래' 불안 여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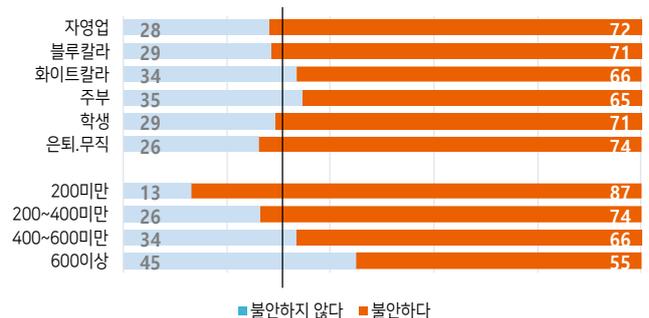
5월 '삶과 미래' 불안 여부: 성/연령별 (자료:2022.05.08조사,단위%)



5월 '삶과 미래' 불안 여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5월 '삶과 미래' 불안 여부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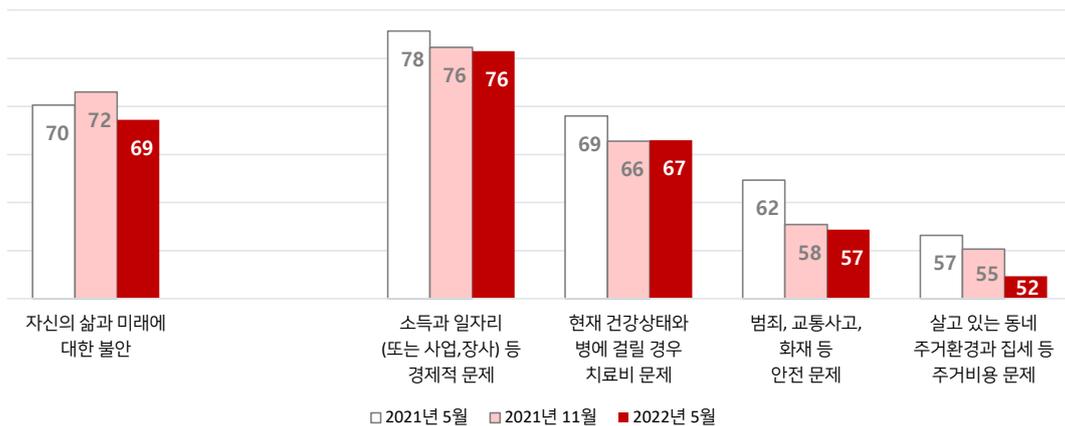
#### Kstat Point

- ☑ 국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음
  - : 지난해 조사에서 다른 성·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보인 여자 20대·40대의 '불안하다' 응답이 올해는 대폭 감소하고, 남자 3040세대, 충청, 중도층, 학생, 소득 400만원 이상층 등의 불안 심리도 약화됨
  - : 반면, 남자 50대, 호남, TK,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의 불안감은 큰 폭 상승함

## □ 영역별 불안감, '경제적 문제' 76%로 가장 높아

- 현대 국가들이 국민 개개인의 영속적인 삶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원 또는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삶의 영역은 '경제', '건강', '주거', '안전' 등 4가지 영역임
  -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 중 일부가 충족되지 못하면 개인은 '불안감'을 느낌
- 4가지 삶의 영역별로 구분해 불안 여부를 질문한 결과, 국민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76%)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불안감이 높은 영역 또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건강상태와 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문제'(67%),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 문제'(57%), '살고 있는 동네 주거환경과 집세 등 주거비용 문제'(52%) 순으로 나타남

'삶과 미래' 불안도 및 영역별 불안도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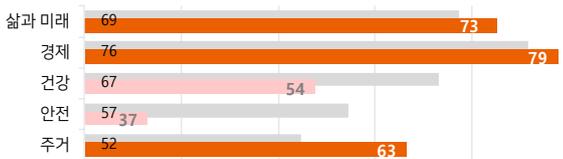
### Kstat Point

- ☑ 지난해 5월, 11월과 비교해보면 '안전'과 '주거비용'의 문제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은 하락했지만,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는 작년 11월과 비슷한 수준임
  - : 참고로 지난 1월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드의 '국민 삶의 질' 조사 결과에서도 개인의 삶의 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소득'인 것으로 나타남 (삶의 질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요인은 월평균 개인소득(600만 원 이상, 1.04), 월평균 가구소득(600만 원 이상, 0.76), 퇴직(0.3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 한편, 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과 별개로 소득·일자리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 지난 2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후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화됨
  - : 2020년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상위 10%의 소득/하위 10%의 소득)은 42.4배를 기록하며, '19년(40.8배) 대비 증가하면서 '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추이가 꺾였고, 2020년 근로소득 지니계수(0.446)도 '19년(0.444)보다 소폭 증가하며, '10년(0.511) 이후 매년 개선된 추세가 주춤함
  - : 2020년 근로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 상승률은 4.7%, 하위 1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0.8%에 그침
  - : 앞서 '경제적 문제' 불안감이 큰 배경에는 이러한 소득·일자리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불안감 더 높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막대와 좌측 숫자는 국민전체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주황색 막대, 높으면 짙은 주황색 막대임
- 남성 50대는 주거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타 연령대보다 불안감이 높고, 여성은 개인 삶·미래와 4가지 영역별로 가장 높은 불안감을 보인 연령대가 다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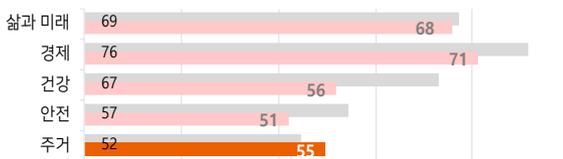
남자 18~2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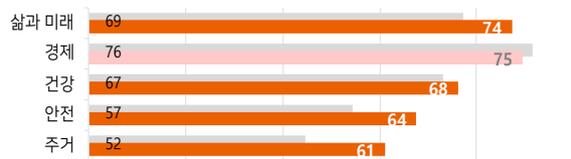
여자 18~2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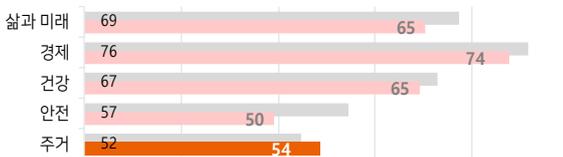
남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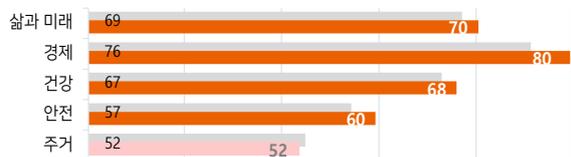
여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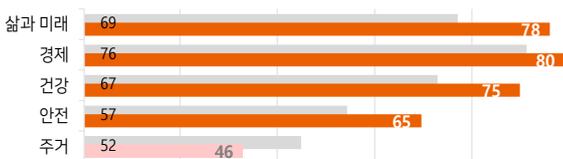
남자 4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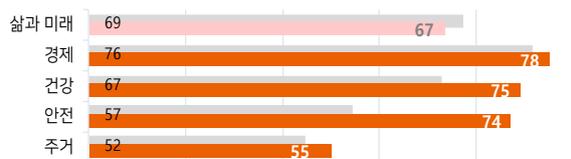
여자 4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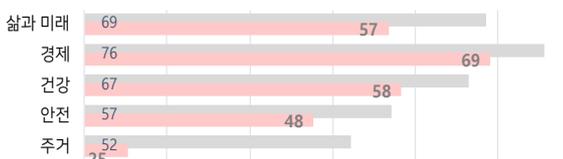
남자 5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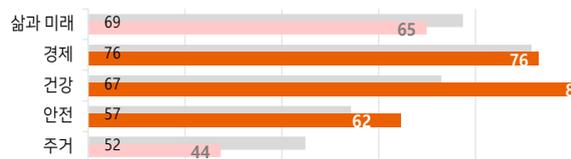
여자 5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남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여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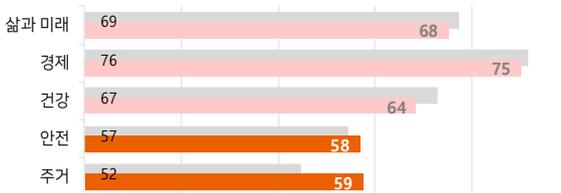
### Kstat Point

- ☑ 5월 성/연령별 불안감 조사 결과는 큰 틀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 여성은 자신의 삶·미래와 4개 영역별 불안감이 대체로 국민 전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남성보다 삶 전반에 대한 불안도가 높았음
  - : 안전 영역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이 남성보다 여전히 높으며, 주거에 대한 불안감도 남녀 5060세대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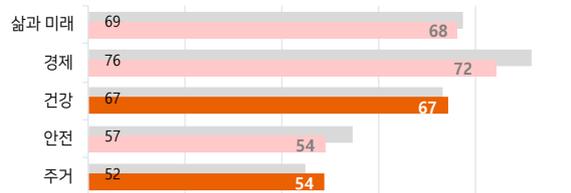
## □ 불안감 높은 지역, 호남과 TK

- 불안 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과 TK 지역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막대와 좌측 숫자는 국민전체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주황색 막대, 높으면 짙은 주황색 막대임
- 호남은 경제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TK는 주거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국민 전체보다 더 높은 불안감을 보임
- 충청지역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경기·인천이 낮았음
  - 다만, 충청지역은 건강 영역의 불안감은 70%를 기록해 국민 전체보다 높았음
  - 경기·인천 지역은 영역별 불안도가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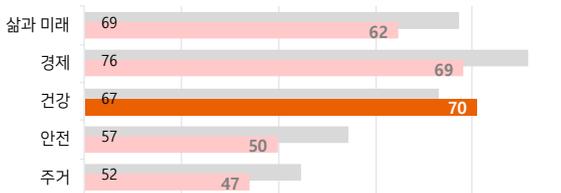
서울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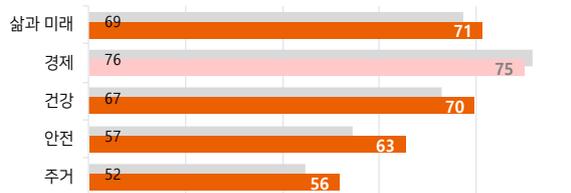
경기·인천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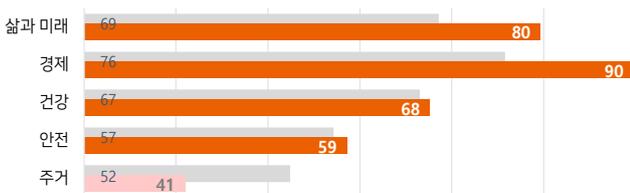
충청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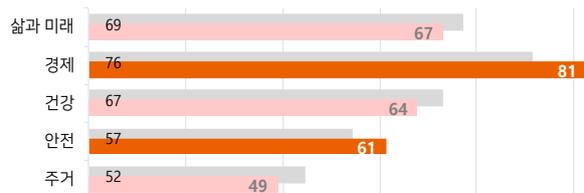
호남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TK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PK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05.08조사,단위:%)



### Kstat Point

- ☑ 작년과 비교해 살펴보면, 중부지방의 불안감은 감소하고 남부지방의 불안감이 증가한 가운데,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충청권과 남부지방의 불안감이 다른 방향으로 엇갈린 점이 눈에 띈
  - : 서울, 경기·인천, 충청은 전 영역에 걸쳐 불안감이 하락함. 반면, 호남과 TK는 삶과 미래, 경제문제 등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PK는 경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증가, 삶·미래, 건강, 주거 영역의 불안감은 감소함
- ☑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면서 불안감을 형성한 것으로 보임
  - : 지난해 11월 서울연구원이 2012~2020년간 세대별 자산 격차를 분석한 결과, 자산 최저점에서 최고점에 도달하기 까지 수도권의 가구가 비수도권 가구보다 약1.5배 빠른 속도로 자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남
  - : 이 배경에는 집값 상승, 지역별 경제 규모,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일자리 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진단함
- ☑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면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됨
  - : 정부 역시 작년 10월 전국 시군구 중 39%인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지방소멸을 우려하고 있음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51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51호는 『한국인의 24시 ② 하루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5월 26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